

깜짝 인기 속 '큰손'에 끌려가는 트로트 시장

'미스트롯' 대박 후 방송사·투자사·중소업체 갈등 후속 프로 붓물 독점구조 우려 "불공정 행위 큰 문제"



최근 서울 플랫폰창동61에서 열린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청춘' 기자회견에서 출연진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TV조선 '미스트롯'이 깜짝 흥행을 통해 트로트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지만 이번에서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다. 수익 배분을 놓고 방송사와 투자사가 갈등을 빚는가 하면, 자본력이 있는 대형 업체가 이익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형 업체가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서 여기서 등장한 인기 있는 참가자들을 다시 끌여오는 구도도 과도하게 세를 불린다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예상 밖 호황... '진짜 수익' 배분 놓고 방송사·투자사 갈등

TV조선 '미스트롯'이 지난 2월 시작했을 때만 해도 "오디션 장르의 블루오션"이라며 흥행을 조심스럽게 예측한 목소리는 있었지만, 이 정도 '대박'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송가인-홍자경 구도 전락, TV조선 주요 시청자층과 맞떨어진 장르 및 연출이 빛을 발하면서 지난 5월 2일 최종회는 무려 시청률 18.1%(닐슨코리아 유료가구)의 진기록을 세웠다.

이렇듯 예상 밖 신드롬급 호황을 누리던 '미스트롯'은 이후 '진짜 수익'을 둘러싼 배분 문제에 직면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현재 진행형이다.

'미스트롯'이 낳은 화려한 송가인의 수익금 정산을 둘러싼 TV조선과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 간 논쟁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현재는 지역 콘서트 판권을 놓고 벌어지는 양측 갈등이 더 크게 불거진 상황이다.

'미스트롯'과 이후 콘서트에는 프로

램 제작에 투자한 MBK엔터테인먼트와 MBK 산하 포켓돌스튜디오, 소리바다,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제이저스타 등 여러 회사가 관여했다.

방송가에 따르면 '미스트롯' 지역별 콘서트는 이들 업체가 TV조선과 계약을 한 뒤 판권을 쥐고 다시 지역 공연기획사에 돈을 받고 넘겨 행사를 치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문제는 MBK 관계사가 지역 기획사에 얼마를 받고 공연할 권한을 줬는지를 TV조선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데서 불거졌다. TV조선은 '미스트롯' 콘서트가 시작된 후부터 MBK 측에 계속 해당 계약 공개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해 분쟁이 식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갈등은 최근 로펌을 낀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이어지면서 법정공방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 제작 관여 업체들이 '톱12' 절반 이상 관리

가요계에 따르면 '미스트롯' 톱 12 가운데 절반인 최소 6명이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회사들과 관련된 기획사에 현재 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오디션 참가 전 중소 기획사에 소속돼 있었지만 프로그램 과정에서 이적했고, 원 소속사와 분쟁도 일어났다.

1위 송가인과 3위 홍자는 '미스트롯' 제작을 지원한 MBK엔터테인먼트가 투자해 설립한 포켓돌스튜디오 소속이다.

소리바다도 미스트롯 음원 유통을 맡고 제작 지원에 참여했는데, 2위 정미애와 톱12 중 한 명인 김소유는 소리바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에서 활동한다.

미스트롯 참가자들이 높은 인기를 얻고 새 회사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파열음도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스트롯에서 4위를 차지한 정다경은 최근 기존 소속사 쏘팩토리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기존 소속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다경 측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실제 소송 등에 나서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위약금 규모를 둘러싸고도 견해를 빚고 있다.

이런 잡음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대형 업체에 이익이 쏠리는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

프로그램 초반 미스트롯 참가자들은 TV조선 출연 계약과 함께 1~5위 참가자의 경우 1년 6개월간 포켓돌 스튜디오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려는 요구

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소 기획사 관계자는 "힘이 없는 것이 억울하고, 프로그램에 괜히 내보냈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발로 뛰어서 다듬어 놓은 아티스트를 빼가려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 트로트 오디션 붓물 속 부작용 우려... "불공정 행위 큰 문제"

방송가에서는 '미스트롯' 신드롬 후 비슷한 포맷의 오디션 예능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특정 회사가 사실상 독점 계약을 하는 것이 시장 문화로 자리 잡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많다.

최근 순위조작 파문을 일으킨 CJ ENM의 엠넷 오디션 예능 '프로듀스 101' 시리즈도 방송사가 아이돌 제작과 매니지먼트 등 음악산업까지 수직계열화하는 데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미스트롯' 흥행을 계기로 전근대적인 문화가 고착하기 전 투명한 계약 문화 등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이다.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는 통화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문화산업에서의 불공정 행위다. 낮은 수익 배분율과 부당한 강요도 문제고, '권력'이 가진 위치에 의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런닝맨' 베트남 열광... 팬미팅에 1만명 성황

SBS TV 예능 '런닝맨'은 지난 1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팬미팅에 약 1만명의 현지 팬이 모였다고 3일 밝혔다.

팬미팅 공연은 호찌민 야외 공연장에서 전석 스탠딩으로 열렸는데, 동남아 지역 최초로 1만여명의 관객이 모였고 티켓 오픈 첫날 9000장이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다고 SBS는 전했다.

또 '런닝맨' 팬미팅 행사 공식파트너사인 '아체미디어'의 공식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는 공연 시작과 동시에 5천명이 접속하며 공연을 지켜보기도 했다.

공연 MC는 올해 '베트남판 런닝맨'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겸 가수인 응외안취가 맡았다.

행사는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됐고, '런닝맨' 멤버들은 더운 날씨에도 온 힘을 다해 공연했다.

SBS 글로벌콘텐츠비즈니스(Biz)팀의 유원리 프로듀서는 "내년 '런닝맨' 10주년 기념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준비하고 있는데, 베트남 팬들이 보내주시는 성원이 큰 힘이 됐다. 내년 팬미팅 투어의 견인차 구실을 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2019 런닝맨 해외 팬미팅 투어'는 홍콩, 자카르타에 이어 호찌민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다.

한편, '런닝맨'은 베트남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베트남판 런닝맨 시즌2' 론칭을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

배우 전혜빈 7일 결혼 '겨울의 신부' 된다

"예비신랑과 함께할 때 행복"

배우 전혜빈(36·사진)이 겨울 신부가 된다.

전혜빈 소속사 팬스타즈컴퍼니는 3일 "전혜빈이 오는 7일 사랑하는 연인과 백년가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전혜빈은 소속사를 통해 "예비신랑은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으로 저와 깊은 공감으로 소통하며, 함께할 때 더 큰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게 돼 결혼을 결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간 지진한 만남 끝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소속사는 "두 사람의 뜻에 따라 결혼식



에 대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만큼은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2002년 그룹 러브로 데뷔한 전혜빈은 이후 연기자로 전향해 드라마 '마녀유혹', '신의 저울', '인수대비', '조선총잡이', '또 오해영', '캐리어를 끄는 여자', '조작', '왜그래 풍상씨' 등에 출연했다. 최근작은 TV조선에서 방영 중인 '레버리지: 사기조작단'이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나쁜 사랑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맛 보살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셀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하자있는 인간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다크 공간(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동백꽃 필 무렵 스페셜(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카봇 유니버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하자있는 인간들(재)	00 SBS 12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청 시리즈 55 테마스페셜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고고성 50 KBS 재난방송센터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3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뉴스브리핑
3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박사봇 50 빠샤 메카DS	
4	00 시사건건	00 무한리필 셀러드(재)	20 나쁜 사랑(재)	00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라이프 오브 사만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반지의 비밀길 2 15 숲! 내 친구는 빅파이브 30 강력추천 베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차츰우물 만국 유람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2019시민대학 민주인권토론회	50 우이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하자있는 인간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더 라이브	00 99억의 여자	05 실화탐사대	00 이동욱은 토코가 하고 싶어서
11	35 UHD 스포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스탠드 업(재)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35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극한직업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크프라임	19:00 스파이더맨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55 EBS 초대석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당동영 유치원	14:45 물랑	20:00 머털도사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한번쯤은, 하염없이 몽골 -유목민으로 산다는 것>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1:30 한국기행 <삭혀야 제맛, 발효기행 3부 그 집 향아리엔 뭐가 들었을까?>
09:00 엄마 까투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1:50 EBS 다크프라임
09:30 원더볼츠	15:55 엄마 까투리(재)	22:45 극한직업
09:40 아기 동물 귀여워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3:35 EBS 초대석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24:25 지식의 기쁨(재)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영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4일(음 11월 8일 乙亥)

<p>36년생 원인 요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지장을 받게 된다. 48년생 소중함 사람이나 정보를 접하게 될 수 있다. 60년생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72년생 실현 가능한 방책을 강구하자. 84년생 긴요한 불 일이 있을 것이니 절대로 잊지 말라. 96년생 구관이 명관인 법이니, 새 것보다 옛 것이 더 나은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2, 35</p>	<p>30년생 시일이 지날수록 진가를 더하게 될 것이다. 42년생 가득 찬 것 같지만 허술하다. 54년생 합리성이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66년생 과감한 변화를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78년생 아침의 상황이 저녁에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90년생 서두르다 보면 부작용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26, 65</p>
<p>37년생 이지에 부합하고 있는 지 따져보아야 한다. 49년생 화는 많고 길조는 적으니 변동은 피하지 말라. 61년생 가닥을 잡고 보면 의외로 쉬울 것이다. 73년생 이미 쏘아 놓은 화살이다. 85년생 공감과 친화력이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97년생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태이다. 행운의 숫자 : 17, 91</p>	<p>31년생 한 곳으로 집중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43년생 과실이 줄렁줄렁 열려 있으니 풍요로울 것이다. 55년생 일관성 있게 해나감에 성사의 관건이 될 것이다. 67년생 근원적인 것을 살펴본다면 해결책은 쉽게 나온다. 79년생 양호한 기반이 완만한 전개를 담보한다. 91년생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수고로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1, 78</p>
<p>38년생 나이전 만큼 더 많은 번거로움도 따른다. 50년생 변화의 추구가 절실하다. 62년생 가장 현실적이야하면 후회하지 않게 된다. 74년생 복이 지나치면 도리어 재앙이 생기는 법이다. 86년생 솔직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98년생 조건 없이 조력하는 이의 성의가 기특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95, 93</p>	<p>32년생 깔끔한 마무리는 많은 이익을 불러올 수도 있다. 44년생 잡다한 것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핵심 사항에 매진하자. 56년생 주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형국이다. 68년생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80년생 속단하지 말고 파장 효과까지 예견하고 행동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92년생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치워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8, 19</p>
<p>39년생 불합리함에 대한 적절이 시급하니 미루지 말고 즉시 실행 해야만 한다. 51년생 결정적인 때가 되었다. 63년생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75년생 효과와 기능을 배가하는 특별한 상황이 설정 되리라. 87년생 고질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어 후련하겠다. 99년생 드러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편하다. 행운의 숫자 : 89, 92</p>	<p>33년생 듣고 접하다보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45년생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응대하는 것이 낫다. 57년생 미연에 조치하면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69년생 흡족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81년생 상호 증진을 위한 아픔일 것이니 기꺼이 감수하라. 93년생 불안정하다고 여긴다면 일단 실행하면서 체계를 잡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31, 90</p>
<p>40년생 사소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알자. 52년생 압박하였으니 확실한 준비 태세를 취해야겠다. 64년생 지금 굳이 표명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76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다. 88년생 눈이 어두워진 이치로다. 00년생 변경시킨다면 상대적으로 이득을 살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5, 74</p>	<p>34년생 그릇이 커야 많이 담을 수 있다. 46년생 제대로 호평받게 되는 뿌듯함이 있다. 58년생 일찍부터 서둘러야 늦게라도 겨우 도달하리라. 70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82년생 원만하게 진행 되리라. 94년생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꼭 이행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0, 05</p>
<p>41년생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합리하다. 53년생 끌려 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야만 하느니라. 65년생 하등에 우려할 바가 아니다. 77년생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89년생 파다한 정후만 제대로 감지 하더라도 면책할 수 있을 것이다. 01년생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습하기 힘들어진다. 행운의 숫자 : 77, 58</p>	<p>35년생 꾀하는 일은 잘 풀릴 것이다. 47년생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유리하다. 59년생 계속되는 형세 하에서 진전을 보일 것이다. 71년생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83년생 마무리까지 잘 한 후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95년생 순풍에 돛을 달고 바다로 나아가는 위상이다. 행운의 숫자 : 81, 80</p>